

9 월 선교기도 편지

사랑하는 회원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불교의 나라 태국입니다. 회원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할 일러입니다.

회원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과부부도 우허 복수 여권을 받고 태국대사관으로 부터 입국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클이집'의 업무와 살림을 정리한 후 21일 서울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 23일 방콕이 도착하여 선어선교사님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홍식 선교사님의 안내로 태국기독교 총회를 방문하여 임원들에게,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 및 직원들에게 그리고 방콕한인교회 수요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국기독교총회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새한 아파트 윗층에는 김중식 선교사님이 살고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한달동안 임시로 살게 되는데 그 이후는 저희들이 살게 될 아파트를 수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묘즈음 생활이란 문명자의 생활입니다. 보아도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것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15일 우허 개강되는 태국어 공부를 언어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 기도제목: 1. '정년의 시간'을 바트리지 않도록
2. 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3. 생활의 변화로 식구들이 피곤함을 느끼는데 건강하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회원님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국인사말: 사와디 캅(남자) 사와디 카(여자)]

1985년 9월 30일

동역자 된 박 선진, 최정화, 송훈, 지혜 올림.

9월 선교기도 편지

(1985년 9월 첫 편지 원본)

사랑하는 회원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불교의 나라 태국입니다. 회원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할 일터입니다.

회원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외무부로부터 복수 여권을 받고 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집' 업무와 살림을 정리한 후, 21일 서울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 23일 방콕에 도착하여 선배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홍식 선교사님의 안내로 태국기독교 총회를 방문하여 임원들에게, 그리고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 및 직원들에게, 그리고 방콕한인교회 수요일·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는 태국기독교총회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 아파트 윗층에는 김종식 선교사님이 살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달 동안 임시로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살게 될 아파트를 수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요즘 생활이란 문맹자의 생활입니다. 보아도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것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15일부터 개강되는 언어학교에 가서 태국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제목

1.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도록
2. 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3. 생활의 변화로 식구들이 피곤함을 느끼는데 건강하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회원님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국인사말] 싸와디 캅(남자) / 싸와디 카(여자)

1985년 9월 30일 동역자 된 박선진, 최정화, 승훈, 지혜 올림.